



1월 지육시세는 2,300원/kg 예상

2003년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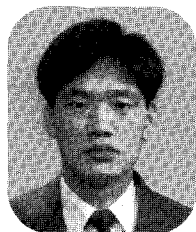
2003년도에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는 살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2년 12월 첫 주에는 출하물량이 전주보다 10% 증가하면서 첫 주의 돼지 지육단가를 전주보다 80원 정도 하락시켰다.

12월 첫 주의 지육단가 하락은 매우 드문 일로서 시장의 변화를 잘 살펴보고 대처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매년 12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연말 소비증가에 따른 돈육 수요 증가로 돼지가격이 상승하여 왔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와 연말 특수가 겹쳐서 소비가 증가할 여건인데도 그와 반대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시장에서의 소비 부진이 육가공 업체의 도축 물량 감소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물량을 증가시킨 것이라면 12월 돈가는 당초 예상보다 좀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월은 <그림1>의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돈가 동향에서와 같이 12월의 단가를 그대로 이어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미울 증돈계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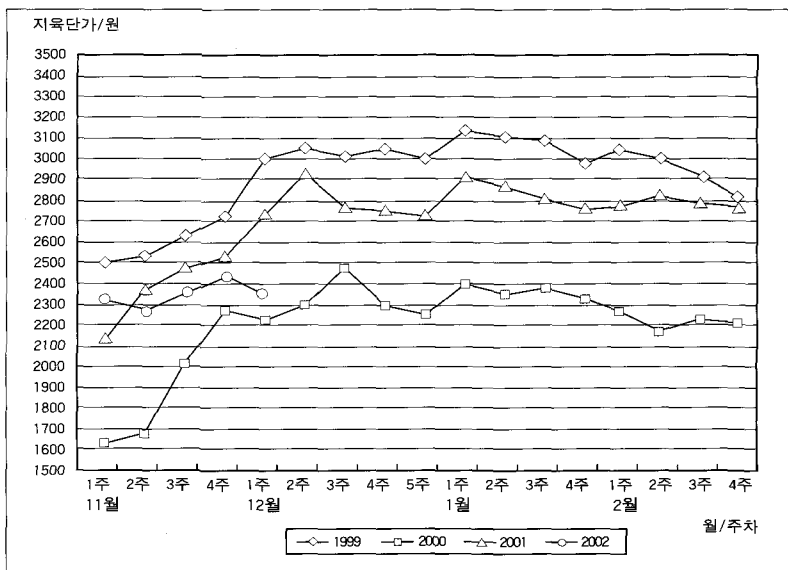
가거나 약보합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연말 자금 수요에 몰린 농장에서 비육돈 출하를 앞당기어 12월 출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1월 출하 물량은 사료 지표로는 증가되나 실제 실적적으로는 전년 12월보다 대략 10%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소비가 연말 수요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출하물량이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년도 12월의 가격을 보합세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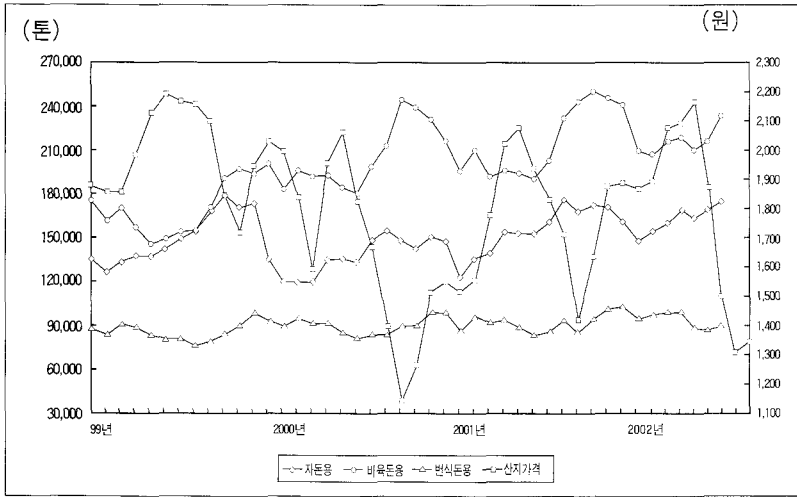
2003년도 1월의 시장 가격은 이와 비슷한 추세로 움직일 것 같다.

<그림2>에서 2003년 1월의 출하 물량에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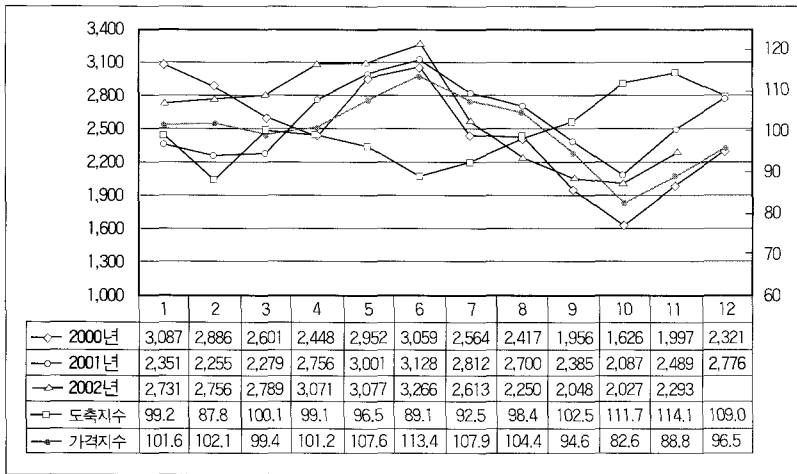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의 서울 2개 도매시장의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3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향을 미치는 번식돈 사료 생산량은 10개월 전인 2002년 3월의 번식돈 사료 생산 실적이며, 2002년 3월의 실적은 전월에 비하여 45% 증가하여 1월의 출하물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2월 조기 출하와 추위로 인한 성장지연과 출하일령 지연 등으로 출하두수 증감은 예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면과는 다르게 소비시장의 부진은 우려할 수준으로 보인다. 내수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도 위축되고 있어 육가공 업체가 재고 물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 부진이 지속될 경우 돈가는 2002년 12월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2003년 2월 2일 민속명절인 설날이어서 1월 중순부터는 설날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의 약보합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수는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 삼겹살과 국내산 냉동 삼겹살의 재고 증가와 전후지 부위의 처리 문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9월까지 수입된 돈육은 58,653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3% 증가하여 국내산 돈육의 재고증

가와 겹쳐지면 시장에서의 재고 돈육이 미치는 영향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소비 부진과 재고돈육의 소비부진이 계속되면 돼지 가격의 상승세는 주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3년 1월 전국 도매 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12월보다 약보합세를 보이는 2,300원 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